

‘자기진단제도’ 모든 부서로 확대

전북교육청, 작년 5개 부서 대상 시범운영 자율점검 효과성 확인 따라 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오류·임무해태·비리 발생 등 사전 차단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기진단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진단제도는 실무부서가 위법 가능성이나 행정 착오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내부 규정·처리 절차·직적 사례 등을 스스로 확인해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이다.

이는 실무자 스스로 행정 리스크를 진단하고, 오류나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자율점검의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올해 7월부터 모든 부서에서 전

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부서에서 선정한 업무로는 △감사관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 절차준수 △예산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교육협력과 어울림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장학건설팀 △행정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확대 시행으로 행정 추진

과정에서 오류·임무해태·비리 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의 자기진단 실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자기진단제도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모든 구성원이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이틀간 2025 인문학 나들이 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2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 일원에서 ‘2025 인문학 나들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인문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인문학적 사유와 글쓰기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문학 강연 △인문학 글쓰기 △인문학 콘서트 등으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사전 신청해 참여한다.



지역별 교육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등 인문학 강연에는 정문정 작가가 참여해 ‘너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마음의 요령’을 주제로, 초등 강연에는 원은정 작가가 참여해 ‘다정한 내가 좋다’를 주제로 각각 학생들과 소통한다. 특히 현지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글쓰기에는 시, 소설, 수필, 극, 동화, 동시, 생활문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인문학 콘서트는 근현대 시를 음악과 엮은 ‘시 콘서트’와 전래동화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양원 문예건강과장은 “인문학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더 무거운 책임감 갖고 지역 교육현안 풀어갈 것”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전주교육지원청 찾아 현안 청취 향후 13개 교육지원청·13개 직속기관 찾아 현안 해결 나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2일 전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별 현안 해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 현장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후 김정기 교육장을 비롯한 국·

과장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 △고교학점제 적용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 덕분에 전북교육은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역별 교육현안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고·충주고, 자공고 2.0 운영 활성화 협력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는 지난 21일 충주고등학교(교장 김동영)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콘퍼런스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학교는 △교과교과 연계 기반 공동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진로 설계·진학 준비를 위한 연합 프로그램 운영 △교원 공동 연구 및 학습공동체 구성 △우수 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창의적 인재 양성, 교사 간 전문성 강화,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역량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진로캠프·멘토링·특강·공동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학교로의 확산 가능한 지역 교육협력 체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고 라구한 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을 넘어서는 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사 연수의 새 공식 ‘실습·참관·현장’

전북교육연수원, 새 자격연수 등 도입... 실사구시 연수 정착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다음달 13일까지 2025학년도 하계 자격 및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수는 총 7개 과정,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수의 방식과 내용 모두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무엇보다 실습과 참관, 즉 중심의 실사구시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기존의 강의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토의하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중등·특수 교감 자격연수는 실질적 학교 리더 양성을 위해 능동적 참여형 연수와 실무 중심 실습형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교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분임 프로젝트, 우리끼리 교감 포럼,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멘토링 활동, 그리고 교감의 한해살이를 위한 업무

관련 실무교육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교감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학교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전국 최초로 사전 수업 참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 군산부설초와 전주부설초에서 실시간 수업을 관찰하고, 멘토링과 성찰 과제를 병행, 실질적인 수업 분석 경험을 제공한다. 중등 국어과 1급 정교사 연수는 세계문화유산 현장 탐방을 연계한 연수로 지역성과 교육 내용을 융합했다. 참여 교사들은 익산 지역 탐방을 통해 통합적 교수 설계를 체험하게 된다. 중등 수학과 1급 정교사 연수는 학교 현장성을 반영한 연수 공간의 다변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역량 강화,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주요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대구와 전북의 IB 학교를 방문함

으로써 정형화된 강의실을 넘어서는 실천 중심의 연수로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수학 불안과 학습 포기 학생(수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학클리닉 활용 방안과 학교 행사와 연계한 즐거운 수학 문화 조성 연수도 함께 진행, 수학과 정교사 영역 향상까지 아우르는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등 영어과 1급 정교사 연수는 연수생 수요를 반영한 멘토링형 프로그램과 함께, AI 및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신규 교육전문직 연수는 전북교육정책,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자세 그리고 다양한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실제 사례 중심의 연수로 운영된다. 민완성 원장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직접 체험하고 익히는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실천가능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실사구시형 연수로 교사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대생 학업 복귀... 의대 교수회 “더 충실한 자세로 의학교육에 임할 것”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의 입장 변화와 대화 의지에 따라 본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어렵고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준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민, 학교 구성원, 교수진,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더욱 충실한 자세로 의학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교수회는 “학교 분부 및 학장단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과정 운영의 형평성 및 기존 복귀 학생들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 연속성 흔들림 없어야”

전북학연협 “전북교육 정책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이들의 배움”

“전북교육은 학생이 먼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전북학연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연속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감 권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금, 전북교육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가장 큰 피해는 닥아온 우리 아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학연협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하며, “전북교육은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정책이 갑작스럽게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은 아이들의 배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교육행정의 불확실성은 곧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주 바뀌는 정책 속에서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학연협은 “교육정책은 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 현장을 흔드는 그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교폭력 해결 위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전북교육청, 올해 25명·내년 75명·2027년 125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꾸려진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5명의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을 도왔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접근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6년에는 75명, 2027년에는 125명으로 확대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가해학생의 학교 적응 향상 및 학

교 교육력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양성 연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5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폭력전문상담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상담전문가 등 50명을 대상으로 일반과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규제나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학생들의 갈등과 상처를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학생들 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지난 21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 협력을 위해 ㈜임팩트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 전략적 맞손

전주대·호원대, 임팩트럼과 협약... 몰입형 콘텐츠 공동 개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일 대학본관에서 글로벌대학 본지정 추진 협력을 위해 ㈜임팩트럼(공동대표 이동욱, 정찬우)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에 선정된 전주대학교-호원대학교 연합이 ㈜임팩트럼과 구형형 LED 조명 조명(다기능 몰입형 체험공간)을 구현함으로써, 교육, 문화, 체험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임팩트럼 이민섭 부사장과 전주대 권수태 교육부총장, 호원대 정의부 부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양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협력의 분야는 구형형 LED 스피어(Sphere)다.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Sphere)는 구형형 디스플레이에 고해상도 영상을 투사해 관람객이 마치 다른 시공간에 들어선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에 전주대-호원대 연합은 K-Life 산업 기반 체험형 실습 공간인 K-Life STARdium에 K-Life 스피어(다기능 몰입형 체험공간)를 구현함으로써, 교육, 문화, 체험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구형형 LED 스피어와 압도적 몰입 콘텐츠를 K-Life STARdium 내에 실현해 K-Life 캠퍼스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